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혜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윤 은 혜

2013년 2월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혜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윤 은 혜

윤은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윤 은 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혜 숙

이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교육에 관한 견해와 요구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자녀 지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부모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6개를 추출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198명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 검사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 부모들이 제주시 지역 부모들보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

식하고 있다. 그 필요 이유는 부모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과 모범적인 생활을 위해서와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부모가 가장 많았다.

둘째, 부모교육 참가 경험은 부모교육에 관해 들어보았다가 제주시 78.5% 서귀포시 93.7%로 부모교육 실시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에 참가한 후 도움 정도는 제주시 82.7%, 서귀포시 90.7%가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다. 부모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부모교육을 받는 적당한 시기는 ‘평생 동안 계속 되어야한다’가 많았으며, 부모교육을 받을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교육내용’이 많았다. 교육 기관은 사회복지 전문기관, 자녀의 소속 학교가 많았으며,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는 무료가 많았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월가계 평균수입,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서귀포시 지역보다는 제주시 지역의 부모가, 부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일수록, 부모의 직업이 전업주부일수록, 월평균 가계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한부모가정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도는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과 부모의 직업 및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부모들보다 부모자신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았다. 또한 부모 본인이 전업주부일때보다 직업을 가질수록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연령이 50대 이상일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 교육요구가 높았다.

여섯째,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교육 요구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 중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영역,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부모자신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에,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성 지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교육 요구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진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요구한다는 것을 시사

하며 이 결과는 앞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삶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었으며,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삶의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부모교육요구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힘들어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요구,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 볼 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들의 수준을 잘 살펴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방안 및 자녀양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13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7
1.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7
1)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특징과 부모역할	7
2)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6
2.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19
1) 양육스트레스 개념	19
2) 양육스트레스 형성요인	21
3)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의 관계	23
3.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25
1)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25
2) 부모교육 요구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29
III. 연구방법	32
1. 연구대상	32
2. 연구절차	32
3. 측정도구	33
4. 분석방법	49

IV. 연구결과 및 해석	4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40
2. 부모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43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5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도	57
5.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	62
V. 결론 및 제언	65
1. 요약 및 결론	65
2. 제언	67
참고문헌	68
Abstract	70
부 록	73

표 목 차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34
표 2.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36
표 3.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37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1
표 5. 부모교육 필요성 및 이유	43
표 6. 부모교육 참여경험	45
표 7. 부모교육 시기와 고려사항	47
표 8. 부모교육 실시 방법과 형태	50
표 9.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	51
표 10.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53
표 11.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56
표 12.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의 전반적인 경향	57
표 13.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요구도	59
표 14.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요구도	61
표 15.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의 관계	62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자녀들로부터 행복감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존재를 영속시키며, 성장해 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사랑과 헌신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하지만 자녀 양육이 부모에게 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양육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스트레스가 있으며 부모들의 삶은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감수하면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아야 한다.

강남 고교생 80%가 재수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부모님이 원치 않아서’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오늘날 부모들은 자식을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성공의 길로 가기까지 최선을 다한다. 대다수의 가정에서 한두 명의 자녀를 낳아 건강하고 훌륭하게 양육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양육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특히 아이에게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느낀다(김원옥 등, 2008).

스트레스에 관련한 보고 중 수도권 사람들에게 실시한 조사에서는 30대 경우,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출산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고, 40대의 경우 자녀와 관련한 스트레스 영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많아(오경자 등, 1998) 부모에게 자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주로 과거의 학교교육, 육아법, 전문도서에서 가장 크게 의존하여 자녀를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도서들은 우리나라에서 양육방법 적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의 이론들이 어떤 경우에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론을 배경으로 한 전문가의 다양한 제언은 부모를

더욱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며 우리나라 가족 문화와의 충돌로 인한 혼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다양한 구조의 가정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알맞은 다양한 양육방법이 요구되어지는데 반면 그에 알맞은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자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 그 기초가 되는 이론은 성인이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어린이도 성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이랑, 2003).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부모가 된 초기에는 자녀양육자로서 부모됨의 정서적 준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빈약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시행착오로 갈등을 경험하는가 하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역할에 융통성과 창의적인 재적응이 요구되므로 시기적절한 부모역할 학습에 부담감이 생긴다(유영주 외, 1997). 자녀를 갖게 되었다고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다.

부모역할이 저절로 익혀지는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 및 교육을 받아야 습득할 수 있다. 부모가 아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공적인 인식은 상당히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다(이은경, 1985 재인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수준, 부모자신의 자기통제력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자녀 행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인 양육 태도로 변화시켰으며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 행동을 증진시켰다고 보고하였다(유은희, 1998).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의 교육 모델을 변안 실시하고 있는 Parent Effective Training(PET), Active Parenting(AP), System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STEP)등이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서구의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어 적용상에서 아직도 가치 갈등을 일으키는 개념, 전달을 위한 기법, 상황설정이나 사례의 선정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연미희, 1995 재인용).

이는 한국 가족의 가치나 욕구가 외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그 적용상 어려움이 있어 우리나라 부모의 가치와 욕구를 반영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 중심으로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자녀의 아동기만을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이후까지 부모의 역할은 계속된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갈등이 유발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며 이 때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생활에서의 성공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이경화 등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 효과적임을 고려할 때 보다 실제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부모가 어떠한 양상의 양육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해야 하고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양육 상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자료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대다수의 부모들은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정보와 지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부모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자녀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에 따라 부모들은 어떠한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자녀 지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로서 부모들이 호소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하위 영역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부모 교육 요구에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다음의 세가지 내용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부모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어떠한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청소년

청소년기는 학령기가 끝나는 12, 13세에서 성숙이 완료되는 18~21, 22세까지 10대 전반에 걸쳐 해당된다. 이 연구에서의 청소년은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거치는 중·고등학생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란 현재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를 의미한다.

2) 양육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란 환경의 요구가 지나쳐서 개인의 능력한계를 벗어날 때 발생하는 개인과 환경의 불균등, 부적합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J.E McGrath, 1978 재인용).

일반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경험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이영숙, 2001), 이혼, 출산과 같은 사건경험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극적이지 않은 스트레스의 경험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나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심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부모기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변화나 극적인 사건경험보다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인간의 적응과 건강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세영, 1995).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대표적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3) 부모교육

부모교육이란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 지식, 지침 등을 마련해 주는 체계적으로 개념화된 교육적 조치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그 중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역할과 부모 자신에 대한 성찰에 대한 교육으로 한정하였다.

부모교육에 대한 참여 여부는 연구자가 특정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관에 따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4)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교육요구란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원하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성장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어 평생 학습자로서의 동기를 가지고 있고 자기 진단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교육 요구 내용을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①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②자녀의 사회성 지도 ③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도 ④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⑤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⑥부모자신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부모자신 성장을 위한 교육을 넣은 것은 부모도 성장하는 사람임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부모됨이 자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1)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특징과 부모역할

(1) 청소년기 부모특징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나이는 빠르면 34세에서부터 50세 후반까지 다양하게 있다. 평균적으로 과거보다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초혼의 시기가 다양해져 청소년기 부모들의 나이도 다양해진다. 대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시기를 중년기라 한다. 여러 학자들이 중년기를 정의하는 각자 기준은 다양하다. 에릭슨에 의하면, 40세를 시작으로 60세까지를 중년기로 보고 있다(황주연 2007, 재인용).

중년기는 인생 주기의 한 부분으로서 전 인생 주기에 대하여 독자적인 공헌과 의미를 제공하며 중년기 자체의 중요성과 의미를 지니는 시기이다. 또한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중년기 특성에 따른 딜레마와 고통, 기쁨, 발달 과업 등을 수반하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발달 단계 중 한 단계이다. 중년기는 성인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년기가 인생의 최고 절정에 오르는 때이기도 하지만,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폴 튜니어(Paul Tournier)가 이야기 했던 ‘인생의 네 계절’에서 여름을 통과하고 가을로 넘어가는 인생의 제2의 전환점에 있는 과도기로서 다른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하영숙 2004, 재인용).

중년기는 개인적인 발달의 관점에서는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생의 유한성을 느끼는 시기이다. 본질적인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 및 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서 절정기이기는 하나, 더 이

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인식하는 시기이다(홍지연, 2007).

중년기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갑자기 상실해 버린 것 같은 허무한 느낌을 갖는데, 자신의 가치체계가 흔들려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 불안으로 인해서 사소한 일에도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중년기는 개인이 최고의 권력을 획득하고, 개인적인 성취, 신체적 성숙 등에 있어서 삶의 전성기로 불려져 왔다. 그러나 동시에 중년기는 종종 과도한 의무와 책임감이란 자극에 의해 압도된다고 느끼는 시기이다(황주연, 2007).

중년기 심리적 관심사의 일부는 새로운 가족 역할에 관련된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함께 부부관계의 재적응을 시도해야 하며, 자녀들의 성장 결과에 따라 자아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권덕만, 2011).

①신체적 변화

성인 중년기의 가장 명백한 신호는 신체적 변화이다. 사람들은 특히 40세 이후에 허리둘레와 체중이 느는 경향이 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남성들은 대머리가 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든 신체의 체체가 점진적으로 노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신체적 힘과 원기도 감퇴되어 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쉽게 피로해지며 피로와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데에도 이전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최문임, 2007).

성인 중기에는 감기나 알레르기 같은 가벼운 병에는 거의 걸리지 않으며 사고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건강은 조금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뇨병, 심장마비, 뇌출혈, 암과 같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성인병에는 이제까지보다 더 잘 걸리게 된다. 특히 합병의 증상으로 신체적으로 ‘가슴이 답답함’, ‘뛰쳐나가고 싶음’, ‘치밀어 오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두통, 식욕상실, 무력감,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합병을 특징짓는 증상은 ‘화’가 중심이 되어 나타나는 ‘몸의 열기’, ‘답답함’, ‘치밀어 오름’, ‘덩어리 뭉침’ 등의 4대 증상이라 할 수 있다. 또 정신적인 면에서는 분노, 억울함이나 분함, 슬픔, 우울 등의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는 건강 유지에 관해 많은 관심과 주의가 따르게 된다(김성수, 2001).

아주 명백한 지능의 변화 중에서도 정신적 반응(mental reaction)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중추신경 체제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년기의 사람들은 빠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지 못하지만 어휘, 기억력 또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업은 잘 수행한다. 중년기의 사람은 자신의 느려진 반응 때문에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사고와 효율적인 판단력을 갖고 일하게 되는 지도 모른다. 보편적으로 어떤 개인의 문제를 의논해 주고 의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연령범위가 중년기에 속하는 것도 이러한 특징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최문임, 2007).

재생산 능력 상실을 수방하는 생리적·신체적 변화, 즉 갱년기 현상은 중년기의 생활 위기에 심각하게 작용한다. 사춘기에서 시작된 성에 따른 역할의 변화는 약 40세에 최고점에 도달한다. 이러한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생리적 재생산성의 상실은 성에 따른 역할의 차이를 감소시켜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 역시 인간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본다(홍지연, 2007).

여성에게 가장 의미심장한 갱년기 변화는 여성의 출산 능력 상실과 생리현상의 중단을 들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자궁, 질, 가슴의 위축에서부터 현기증, 투동, 정신 질환에 따르는 불편과 같은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긍정적인 변화들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는 오히려 성적 반응을 증가시킨다. 남성은 폐경기의 여성과 같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들 또한 ‘재생산 능력의 상실’이라는 남성 갱년기를 경험하게 된다. 정력 감퇴, 남성 호르몬 분비의 감소, 성욕감퇴 등은 남성 갱년기의 징후들이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보다 5년 혹은 10년 늦게 갱년기에 도달하며 생리적으로 그 속도 또한 점진적이다(고경희, 2004).

②심리적 특성의 변화

중년기 남자는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초기 성인기를 거쳐 중년기라는 지나간 정체기로 넘어 가고 있는데, 10대 소년과 마찬가지로 중년의 위기를 맞고 있는 남자도 제 2의 사춘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년기의 위기를 맞고 있는 남자는 정서적으로 피로해서 자신이 점점 성적으로 무능력해진다고 느낄 수 있으

며, 성이 생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또한 중년 남자는 직장에서 자기 권리를 넘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씨름을 한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무서운 짐을 지우고, 또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든 사회와 가족 그리고 심지어는 신에게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는다(김명자, 1989).

중년 남자는 엄청난 기분의 변화를 겪는다. 또한 자식들, 부인, 직업, 집, 안팎의 일, 세금, 정치 그리고 자신이 지고 있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대해 불만스럽게 느낀다.

중년의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 중의 하나는 우울에 빠지는 것이다. 우울은 가장 손쉬운 도피책인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것은 또한 중년에게 압력을 가하는 여러 갈등하는 힘들과 자신의 내부에서 요동치고 있는 파괴적인 분노와 좌절, 고통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정동순, 2004).

중년의 시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 자기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위기에 몰두해서 내성적으로 되고 완전히 자기 자신에 몰입하게 된다. 그리고 때때로 허공을 응시한 채 주변 세계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한 죄책감은 고백과 보상과 용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중년이 되기까지 노력을 해왔는데도 자신의 꿈대로 살지 못할 때 느껴지는 죄책감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노민옥, 2006).

특히 자식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중년 부모는 그것을 자신의 실패로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다. 죄책감이 떠나지 않고 중년기를 괴롭힐 때 우울증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지나온 자신의 삶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은 자신감과 영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다 준다. 우울증은 주로 분노가 자기 안으로 향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다. 또 자신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력감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런 무력감은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심화되고 자신이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좌절을 경험한다(황인성, 1998).

③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나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감정에 큰 안정을 얻는다. 많은 감정의 힘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은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삶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과제이다(조지행, 2002).

이십대와 삼십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개 미련에 대한 야망들이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부여해준다. 낙관주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만 삼십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있어서 자신이 처음에 원하고 꿈꾸던 것들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의 현실 위치는 이십대에 꿈꾸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꿈과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급속히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에게는 그의 삶에서 직업이 첫 번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이십대 후반이나 삼십대 초반에 가서 남성은 평생의 직업을 결정하고 저돌적으로 그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승진은 더 많은 경제적 수입과 더불어 안정된 생활 기반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직업이다(노민옥, 2006).

많은 직업에서 중년기의 남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의 높이는 제한되어 있다. 더 이상 딛고 올라설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직업이나 직장에서는 아직도 올라갈 자리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싫증을 느끼거나 아무 만족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 및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갈등들이 그 직업에 대하여 권태와 피로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실패와 절망감을 맛보게 된다. 자신의 한계에 대한 강한 자각은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

청소년기 자녀들의 반항, 좌절, 불만, 마음의 갈등들은 중년기 부모에게 무거운 짐이 되며, 큰 충격을 안겨 준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사춘기가 부모들이 중년기

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자신이 감정의 압박들로부터 자유로울 때 자녀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겪었으면 하고 바란다. 사실 청소년기 자녀들과 부모의 마찰이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정상이며, 문제는 부모가 그 갈등을 건설적이고 효과 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귀히 여겨야 한다(권덕만, 2011).

(2)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역할

청소년기 자녀들 둔 부모들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우선 청소년의 급속한 신체적 성장은 부모의 체벌이나 통제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부모의 권위는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인지적 성장이 이루어진 청소년은 부모가 설정한 규칙이나 가치관에 대해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비판적으로 부모를 대하게 된다. 부모는 아동기와는 달라진 청소년의 버릇 없는 태도에 당황하게 되고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대하기 쉽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불안정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청소년을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부모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김경화, 1989).

청소년은 아직 자신만의 주관적인 가치관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므로 부모는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여 대립적인 관계로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청소년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여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나 학업성취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나 교사보다는 또래친구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래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또래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또래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경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은 현실적으로 부모밖에는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더욱이 부모는 가치관이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인생경험이 풍부하고,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청소년에게 커다란 도움

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들은 의사소통기술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이외에 감정의 교환이나 공감 등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 감정이입,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열심히 들어주는 자세 등이다.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녀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통제하며 비난하는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 청소년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과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의사소통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김상은, 2011).

요즘에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의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게임 등에 열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때문에 실제세계와 가상세계를 혼동하거나 컴퓨터 중독증상 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것은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컴퓨터를 좀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나 생활에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연령은 중년기¹⁾에 해당되는데, 중년기에는 건강상태를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하여 신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아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즉 중년기는 인간의 생활주기 상에서 개인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의 절정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인생의 후반부로의 진행을 의미한다. 자신의 갱년기 증, 신체적 감퇴, 역할 변화 등을 수용하며, 자녀의 성장 및 가족생활의 안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노후의 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즉 중년기는 생애구조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자아정체감의 재창출 작업이 요구되는 단계라는 점을 볼 때 청소년 자녀와 부모 관계는 부모자녀 모두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업이 서로 얽혀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1) 윤진(1988)은 일반인의 중년기 연령 구분에 대한 연구에서 남자 39~59세, 여자 36~55세까지를 중년기로 보고 있다. "인생단계와 그 연령기준(I)", 한국심리학회지 7(2), pp.127~139. 이 연구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연령층은 아버지 40~60세가 90%, 어머니 36~55세가 99%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 중년기에 해당한다.

이런 발달 단계와 특성은 부모자녀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며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상호작용하지 못했을 때 부모 자녀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최은경 2003, 재인용).

따라서 이 시기의 변화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분리(separation)와 부모에의 지속적인 유대성 유지(connectedness)라는 두 역설적인 차원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관심은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과 부모와의 사이에서 분리의 증가 및 친밀성의 부재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강조 뿐만 아니라 애착과 친밀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청소년기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양식에 있어서 변화 및 재정의(redefinition)적 성격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¹⁾

청소년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은 사상적, 인지적 동일시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Cooper와 Blair는 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청소년은 부모와 매우 비슷한 사상적 표현을 한다고 주장한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교육, 특히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교우관계, 자아개념 형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원윤희 2009, 재인용).

이 시기의 부모에게는 보다 성숙된 역할수행이 요구된다. 단순한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보호자로서, 동일시 대상으로서 그리고 상담자이며 때로는 친구관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맺는 자녀와의 바람직한 발달적 상호작용은 자녀로 하여금 유능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서 성장하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양육 태도 및 양육자, 격려자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부모역할이 요구된다.

①양육자 역할

1) 정경아(1992)는 청소년-부모 관계의 특징을 ①자율성 발달과 분리 차원, ②연결성 유지 및 친밀성 차원,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 가운데 잠재 가능한 ③ 갈등의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사춘기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41.

청소년들은 동료집단과 존경하는 중요한 인물 그리고 이상적인 인물들에 의해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경험은 가족의 통제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자신만의 목적과 흥미를 설정하고 운영하며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으로 주체성 형성을 돕는다(이지연, 2001).

그러나 성숙된 부모는 자녀가 자아정체감을 발달하는데 모범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 자신의 갈등과 좌절을 자녀에게 투사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는 자녀의 인성발달과 적응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부모 자신이 성숙된 개인이어야만 자녀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자기의 성별에 맞는 역할을 배운다. 정체감 형성 과정은 부모, 청소년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지만,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일시 대상으로서 부모는 자녀의 장래 생활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②학부모 역할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학부모로서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올바른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친구관계, 학업성적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때마다 부모는 교사, 상담교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자녀의 적응문제를 돕도록 한다(김인욱, 2006).

상급학교의 진학문제와 직업과 관련된 진로선택의 문제도 학부모의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포부수준과 기대가 지나칠 때 자녀는 좌절감을 겪기 쉽다. 따라서 교사의 도움과 몇 가지 심리검사를 통한 기본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의 학업성적, 흥미, 적성에 알맞게 적절한 조언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학문제나 진로선택에서 자녀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본인 의사에만 맡기는 것은 무관심이나 거부와 통하므로 간섭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과잉보호적 태도는 자녀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비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에게 수용적이면서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성숙한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다.

③상담자 역할

청소년기에는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난다. 이때 청소년은 그가 당면한 학업문제, 친구관계, 이성문제 등에 대해 상담자로서 부모의 조언과 협조를 기대한다. 상담자로서의 부모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자녀의 학교생활·사회생활에 관한 예비지식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이해와 수용, 애정을 내포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김경민, 2006).

자녀를 사랑하고 잘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자녀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려는 핵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할이 서툴러 자녀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자녀들은 결코 자기의 문제를 부모와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강요를 바탕으로 하는 부모의 권위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킨다.

가족의 의사소통체계는 청소년의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한 자녀는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주고받는다. 결국 자녀가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양육자로서, 격려자로서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며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이 성숙된 부모의 역할인 것이다.

2)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 사건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학업성취 문제이며, 두 번째는 부모와의 갈등, 세 번째는 외모 및 교우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만 겪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녀 또한 부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동안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접근은 Freud의 정신역동적 관점에 의해 처음 보고 되었는데, 부모는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청소년은 성적 본능을 재인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자녀 관계에 단절이 일어난다고 가정했

다(노정아 2002, 재인용). 그러나 이후 정신역동 이론가들은 부모의 배척이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부모-자녀 관계를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갈등이 유발된다. 흔히 ‘무서운 10대’ 라고 지칭되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질풍노도와 같은 정서적 특징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저항하고 싶은 보편적인 욕구와 더불어 나타나는 정상적이며 불가치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갈등의 주원인은 급격한 사회변화, 사회적·인성적 발달에 따른 독립의 요구,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과도한 반항이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고 한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생활에서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들이 비행에 이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부모-자녀 관계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기에 일탈 행동을 예방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발달하기 위해 부모가 노력해야 한다(이지연, 2001).

먼저, 청소년의 반항 및 비행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역할을 찾지 못하여 번민하는 시기이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반항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비행집단에 속하여 그곳에서 소속감을 찾고자 한다. 이때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자녀의 도덕성 발달을 저해하고 갈등과 일탈을 유발하게 되므로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노정화, 2002).

부모들은 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들의 발달적 특성이나 심리적 상태 이외에 친구관계, 여가활동, 교내외 활동 등의 제반 생활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자녀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에 적절한 관심을 나타낸다면 자녀의 반항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교육은 남녀 행동특성의 차이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교육이 유아기부터 각각 그 단계에 맞게 실시된다면 청년기에 제2차 성징과 함께 갑작스럽게 교육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으며, 성적 관심을 충족시켜 호기

심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성교육에는 성에 대한 지식(information)과 성에 대한 가치(value)를 가르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성에 대한 가치는 가정교육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성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청소년의 갈등과 성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다. 성교육의 목적은 배워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진실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왜곡된 개념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윤리적 가치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이성관계와 육체적 관계에서 이성관·가정관으로, 나아가 사회 속의 남녀관계에 이르기까지 성적 관심과 행동을 승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 관계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10대들은 모순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나, 이는 매우 정상적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부모들은 10대들의 못마땅한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수용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단점을 꼬집어내거나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무시해도 될 결점까지 꼬집어낸다. 이와 같은 지나친 정직성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10대 자녀들은 자신들의 결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강요하는 부모와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큰 소리로 야단치기보다는 조용히 타이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10대의 자녀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독립심을 길러 주어야 한다. 부모가 청소년기를 맞은 자녀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관심을 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또한 독립심과 자부심을 불어넣기 주기 위하여 말을 할 때도 신중히 한다. 자녀의 신중한 판단력과 결정하는 자세에 대해 능력을 인정해 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박남웅, 2008).

최규련(1999)은 서울시와 근교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대한 관련변인(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요인, 자녀요인, 부모자녀 관계)의 상대적 영향력과 청소년의 우

울 정도와의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의 가정생활 만족은 청소년 자녀가 가족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하고 부나 모와 의사소통을 잘 하며,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와 친구관계,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2.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 양육스트레스 개념

Abidin(이랑, 2003 재인용)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역할에서 일상적으로 지각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면서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는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에 단순 선형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왜냐하면 양육스트레스가 아주 낮을 때에도 역기능적 양육과 관련될 수가 있는데,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양육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환경적 변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변인으로 양육신념과 동기체계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bidin(이랑, 2003 재인용)은 부모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 일, 환경, 배우자와의 관계,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 주요생활 사건, 자녀의 특성 등을 통해 부모역할을 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과 관련된 맥락에서 자신이 내린 평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최경화, 2008).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서구보다 더 밀착되어 있고, 효 사상이 약화되었다 해도 자녀에 대한 가치나 기대는 서구에 비해 전통적이다. 또한 사회적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학력인 만큼 부모의 과도한 학구열 역시 부모-자녀관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체계가 직면하는 발달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다.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며,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과 가사노동 증가는 부모로 하여금 개인생활을 가질 만한 여지를 주지 않고,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녀의 유별난 행동과 기질, 부모의 성격이나 가치 지향, 기본 정서 등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와 자녀의 기질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부모가 자녀의 느낌이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진다. 사회가 혼탁해지면서 드러나는 자녀양육가치의 혼미 및 부재 현상 역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더 부추긴다(고성혜, 1994).

모든 스트레스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때, 또 주변에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단계에 포함된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가족은 아이가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환경으로서 신체, 정서, 사회 및 대인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체계임을 동시에 가족 내에서 부모는 자녀와 최초로 밀접한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부모역할은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이 되고 다른 사회적 관계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성장기 자녀의 성격발달과 행동형태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모든 부모는 누구나 자녀를 잘 훈육하여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황경란, 2004).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들에게 분노, 좌절감,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두통, 불면증, 면역력 저하, 피로감, 섭식장애 등을 가져온다. 부모들이 받는 양육 스트레스의 부작용은 부모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애착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 자녀도 행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모들은 양육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양육스트레스 형성요인

양육스트레스의 형성요인으로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모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며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극복방법으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며, 양육자의 개인적 시간과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양육자와 아이의 단 둘만의 시간과 양육태도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은 개인에게 중대한 삶의 변화를 주는 중요사건 스트레스이다. 둘째, 일상의 삶에서 거의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있다. 과거에는 중요사건을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보았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스트레스의 누적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안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김종훈, 2006)는 연구 결과들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며 생활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아동의 특성(행동, 연령, 출생순서, 형제의 수 등) 부모의 특성과 부적인 생활사건을 포함한다(민성원, 2010).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고성혜, 1994)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변수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자녀관련 변수이다. 자녀의 학업 성적은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한국사회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는 길이 사회적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자녀를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려 하고, 지나치게 학업성적

과 결과에 매달리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는 자녀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문제행동을 많이 하면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존감과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손상되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자녀에게 적대감을 투사하게 되고 이에 자녀는 문제 행동을 더욱 빈번히 하게 되는 부정적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성혜, 1994).

둘째, 부모자신 관련 변수이다. 양육자인 부모의 특성은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변수이다. 연령, 교육수준, 우울성향 등은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내적 자원인 건강과 부모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이영석 최외선, 1993)에 의하면 부모가 건강할수록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생활 만족도가 높아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은 정신 건강과 관련 있고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므로, 부모의 건강 상태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환경 변수이다. 가족환경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취업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와도 관계를 갖는다.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모는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 강압적 반응을 보일 수 있고(손현숙, 1992), 심지어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명령과 비난을 가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정상적인 관계가 손상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김종훈, 2006). 이러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반복과 누적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지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경험과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경험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이영숙, 2001), 이혼, 출산과 같은 사건경험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극적이지 않은 스트레스의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나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심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기로 전환이라는 중대한 변화나 극적인 사건경험보다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인간의 적응과 건강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세영, 1995).

구체적으로 고성혜(1994)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는 자녀의 장래 및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불안감,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 및 우울성향, 부모의 죄책감 및 역량감, 자녀양육에 따르는 신체적 피로도 및 구속감, 가족간 불화, 자녀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관련 변인, 가족 관련 변인, 그리고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에 대한 기대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성원(2010)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Abidin의 Parenting Stress (PSI/SF)에 기초를 두어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을 일상적인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3)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의 관계

부모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인 역할들에 비해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모로서의 역할전환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역할전환은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행동발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서소희, 1994), 부정적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명령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주미, 1992). 이렇듯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가족기능을 더 잘 예측한다는 보고가 있다(김중훈, 2006). 특히 여성의 경우 모성애에 대한 전통적 태도, 즉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어머니의 보호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은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과정에서 구속감과 스트레스를 아버지보다 더 많이 느끼게 한다(박해미, 199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이유진 & 박경, 2005; 최정미 & 우희정, 2004).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면서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원의 욕구수준도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오늘날의 부모역할은 과거의 일상적으로 수행해 왔던 것과는 달리 그 역할 수행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혜란, 1988; 한세영, 1996). 아울러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져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박해미, 1994; 한세영, 1996).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가 겪는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종훈, 2006).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6명을 대상으로 MBTI와 PET의 내용을 재구성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영역 중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하위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MBTI를 통해 부모가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어져 부모의 심리적 수용의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교육자연에서 부모의 관점이 ‘아이의 문제’에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수용선이 문제’로 변화하여 인식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감소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노령에 달하고 자녀가 장년기에 있는 부모자녀 관계는 제외하고, 중년기에 있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3.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1)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은 192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교육이 활발히 진행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교육이 소수의 양반계층과 일본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성영혜 외, 1994).

부모교육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말한다. 즉 부모교육은 “부모교육 참가자의 자질 향상과 부모의 역할 수행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부모와 예비부모, 그리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문제와 자녀교육 문제를 내용으로 모든 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하는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장대운, 1997). 또한 부모교육의 개념을 D. Harman과 O.G. brim, Jr(정문자, 1994 재인용)는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 모두에 중점을 두며, 따라서 목적과 내용, 목표와 대상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라 정의하였다.

부모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며, 부모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태도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 목적 지향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부모교육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첫째,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제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함이다. 부모에게 있어서 바른 자녀관은 필수적이다. 모든 인간은 어려서부터 교육과 환경에 따라 바르고 슬기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개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과 방향을 갖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할 지에 대한 교육방향의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한 독립적 존재이며

장성했을 경우 사회의 한 구성원이요 그들의 문제는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로 보지 않도록 사회 속의, 국가와 세계 속의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자녀교육의 방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이다. 자녀의 삶 속에 부모가 어떤 유형의 자세로서 동반하고 지도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며 상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많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오늘날 핵가족화, 어머니의 직장 진출 등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갖추지 않은 조부모나 매체에 무책임하게 맡겨짐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많은 가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안영진, 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를 조사한 김지신(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나 자녀발달의 기초지식, 의사소통 그리고 잘못된 행동의 효과적인 지도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자녀교육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유은희(1998)의 연구에서 제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자녀의 발달적 특성, 성격특성, 성교육법, 학습태도 증진법 등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의 제공, 부모 자신의 성숙을 돕는 자아통제력 향상,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사소통기술과 민주적인 자녀훈육방법 등이 우리나라 가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화법,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자녀훈육 방법, 올바른 학습태도 관리, 성교육, 부모 자신의 성숙한 개별화 등에 대한 정보와 이해 그리고 기술의 학습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가 강연이나 강좌 등의 소극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내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는 다른 외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가정 환경과 부모의 특성, 자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실정이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단순히 자녀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해 주고 옷을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에서 부모는 단순한 양육에서 나아가 자기 자녀가 그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의 부모에게서 물려 받은 자녀 양육방법이 별 효용이 없다면 부모 역할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많은 부모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훌륭한 부모가 되는 자질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이 타고난 본능이 아니라면 오늘날 고민을 하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녀를 바르게 잘 키울 수 있는 교육, 즉 부모교육이다(윤기영, 서지영, 2001).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부모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양육행동의 습관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고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의미한다. 부모교육이라는 용어 외에도 부모훈련, 부모참여, 부모개입, 부모지지, 부모역할하기 등의 용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사소한 차이를 두고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이재연, 김경희, 1993).

부모교육은 부모역할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술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이며, 효율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최적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하였다(김숙자, 1989).

부모교육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질과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으로서,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가진 능력과 가능성, 그리고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러한 것들을 부모 자신과 가족, 특히 자녀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다(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 편, 1993). 또한 부모교육

은 자녀의 최적의 발달을 위하여 부모들에게 아동발달과 교육과정을 이해하며,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과 양육기술,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아동학회 역, 1989).

용어사용에 있어서 부모교육, 부모훈련, 부모참여 또는 부모개입 등의 비슷한 많은 용어가 사용되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강조점에 따라서 부모교육을 대신하는 말로 혼용되고 있다. 부모참여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부모참여를 기대하는 광의적인 부모교육 개념인 반면, 부모교육이나 훈련 및 개입의 용어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교육의 책임을 인식하고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며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유호순 정원식, 1993).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유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왔다. 현재 주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살펴보면,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부모역할 및 자질향상 교육프로그램과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 동안 교육 효과의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과 가정간의 연계성 증진이나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의 중요성이 지적되면서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부모들의 교육활동 참여가 강화되었다. 이는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모교육이 이상적인 가정교육 범주를 넘어서 부모가 학교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부모참여는 물론 가정의 연계성이 강조되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동반자로서 부모의 능동적 참여가 강조되는 것이다.

부모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교육대상의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의 실시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교육기관만으로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교육기관과 가정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대해 소개하거나 자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교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을 대에 가정과 학교의 연계성이 도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기관에게는 가정에서 부모가 효과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도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대한 내용 및 방법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도 그들의 과제가 되고 있다(윤기영, 서지영, 2001).

이렇듯 상이한 부모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들의 교육기능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부모교육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점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비중이 높아져 가정교육과의 밀접한 연관하에 일관성이 있는 교육을 하여야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부모교육 요구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방적이 아니고 상호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도 부모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한번 형성되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양육태도의 형성은 근본적으로는 그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가족구성이나 가정분위기, 가정의 사회적지위는 물론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의 개인적 조건, 자녀의 개인적 조건 등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강운숙, 1987).

첫아이의 출생으로 부모의 위치에 서게 되면, 부부에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 부모만이 느끼는 온갖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통을 겪어내야 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좋든 싫든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김은선, 2012).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는 자녀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녀가 자신의 가정을 이룬 후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가족스트레스 연구회, 1986). 이광주(1988)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 자녀의 양육태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imons, Beaman, Conger와 Chao(김종훈, 1993 재인용)은 편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우울 성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비효율적인 훈육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Abidin(이랑, 2003 재인용) 역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박응임(1995)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자녀양육 태도는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거부·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행동특성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회의를 느끼는 어머니는 아동을 거부·권위주의적으로 대하였다.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서로가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 주변 환경과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어머니로서의 유능성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이정희, 1999).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장과 성숙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부모-자녀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에 따라서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 교육에 있어 보다 다양한 정보와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유니(2002)는 능력강화 가정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의 부모들의 양육을 통한 스트레스의 감소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영분(1983)도 PET모델을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자녀의 갈등적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는 것은 부모교육을 통해 스트레스의 감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연구이다.

양영숙(2000) 또한 MBTI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자기 수용성이 증진되었고 그로 인한 양육태도의 향상은 양육스트레스의 작동 메커니즘으로 볼 때 가역적으로 생각하면 양육스트레스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옥경(2004)은 좋은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내적통제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다. 내적통제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감정의 통

제가 향상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극복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14~19세) 자녀를 가진 부모 1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제주도 지역에 소재한 6개의 중학교에서 무선표집(random sampling)되었다.

제주시 소재한 오현중, 제주여중, 제주제일중학교와 서귀포시에 소재한 남주중, 대신중, 서귀포여자중학교 학부모 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2년 8월에 제주시 소재한 제주여자중학교 학부모 33명을 대상으로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요구도를 조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조사용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제주시내 중학교 3곳과 서귀포시 중학교 3곳에서 중·고등학생(14~19세)의 학부모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지는 학교 담임교사 및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통해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부모에게 배부된 검사지 260부 중 회수된 질문지는 215개로서 누락된 문항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198부의 자료가 최종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이 연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 중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는 민성원(2010)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Abidin(1990)이 제작한 것으로 신숙재(1997)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교육 요구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정인오(1994), 이은경(1995), 윤명선(1991), 전은희(1995)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사항, 부모들이 지각한 자녀양육스트레스, 부모교육 요구도를 측정하고자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부모교육 요구도(25)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 1=전혀 필요하지 않다 3=보통 5=매우 필요하다
개인관련변수 성별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양육태도	1=남 2=여 1=제주시 2=서귀포시 1=30대 이하 2=40대 3=50대 이상 1=초졸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 이상 1=전문직 2=행정·사무직 3=판매·서비스직 4=자영업(생산,농수산,기술) 5=주부 6=기타(학생, 임시직 등) 1=불교 2=기독교 3=천주교 4=무교 5=기타 1=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2=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관련변수 배우자연령 배우자학력 배우자직업 월수입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	1=30대 이하 2=40대 3=50대 이상 1=초졸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 이상 1=전문직 2=행정·사무직 3=판매·서비스직 4=자영업(생산,농수산,기술) 5=주부 6=기타(학생, 임시직 등) 1=100만원이하 2=100만원이상~200만원이하 3=200만원이상~300만원이하 4=300만원이상~400만원이하 5=400만원 이상 1=단독주택 2=아파트 3=연립주택·빌라 4=기타 1=자가 2=전세 3=월세·사글세 4=기타 1=부부+미혼자녀 2=한부모+미혼자녀 3=기타
자녀관련변수 아들자녀수 딸자녀수 말이 나이 막내 나이	명 명 세 세
실시방법관련변수 교육필요성, 교육필요이유, 교육경험, 교육도움정도, 교육불참여이유, 교육시기, 고려사항, 요일, 기간, 진행 방식, 교육인원, 시간,주기, 기간, 실시기관, 참가비,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방법 요구도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20)	양육스트레스 척도 1=전혀그렇지 않다 3=보통 5=아주그렇다

1) ()안의 숫자는 문항수임

1)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나이, 학력, 직업, 배우자나이, 배우자학력, 배우자직업, 종교, 수입, 자녀수, 자녀나이, 주거형태, 주거소유형태, 가족구성형태,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태도를 묻는 1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문항들은 선택형과 단답형으로 이루어졌다.

2)양육스트레스 도구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PSI / SF(Parenting Stress Index / Short Form)로 민성원(2010)의 선행연구에서 Abidin(1990)이 제작한 것을 신숙재(1997)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PSI / SF는 부모-자녀 관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된 부모용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PSI의 단축형으로 부모영역과 자녀영역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영역은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민성원(2010)은 우리나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하지 못한 문항과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3개의 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문항 중 유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내용 5개를 삭제하여 구성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모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그리고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이 연구의 분석에는 이 세가지 하위요인과 총점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25~12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숙재(1996)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

도는 .85였으며 하위요인들에 대해서는 내적합치도가 .74~.81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수정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877로서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해당문항	Cronbach' a
양육	일상적 스트레스	10	*1,*2,3,4,5,*6,*7,8,9,10	.668
스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8	*11,*12,*13,14,15,16,17,18	.811
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7	19,*20,*21,*22,*23,24,25	.782
전체				.877

*역채점 문항

3) 부모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

부모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측정하는 척도는 정인오(1994), 이은경(1995), 윤명선(1991), 전은희(1995)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부모교육 참여 경험, 부모교육 실시 방법과 형태이다. 부모교육 참여 경험은 참여했는지의 여부와 참여 후 도움 정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분류하였다. 부모교육 실시 방법과 형태는 부모교육을 받는 적당한 시기, 부모교육 참가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 교육 방법, 교육 기관, 교육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적당한 요일과 시간, 함께 공부하는 교육생의 인원, 한 강좌 당 교육 시간, 1주에 적당한 횟수, 교육 기간을 질문하였으며 이들 문항들은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으로 이루어졌다.

4)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부모교육 요구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정인오(1994), 이은경(1995), 윤명선(1991), 전은희(1995)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

을 알아보기 위해 6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에 1점, 매우 필요하다에 5점을 주어 최하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점수는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을 더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6개의 하위영역은 ①자녀의 사회성 지도영역으로 친구관계, 가족관계, 학교생활 향상을 내용으로 하였다. ②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도 영역은 학업성취, 진로지도, 적성과 능력개발을 내용으로 하였다. ③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의 영역으로 청소년 자녀의 행동특성이해, 성인식, 이성교제를 내용으로 하였다.

<표 3>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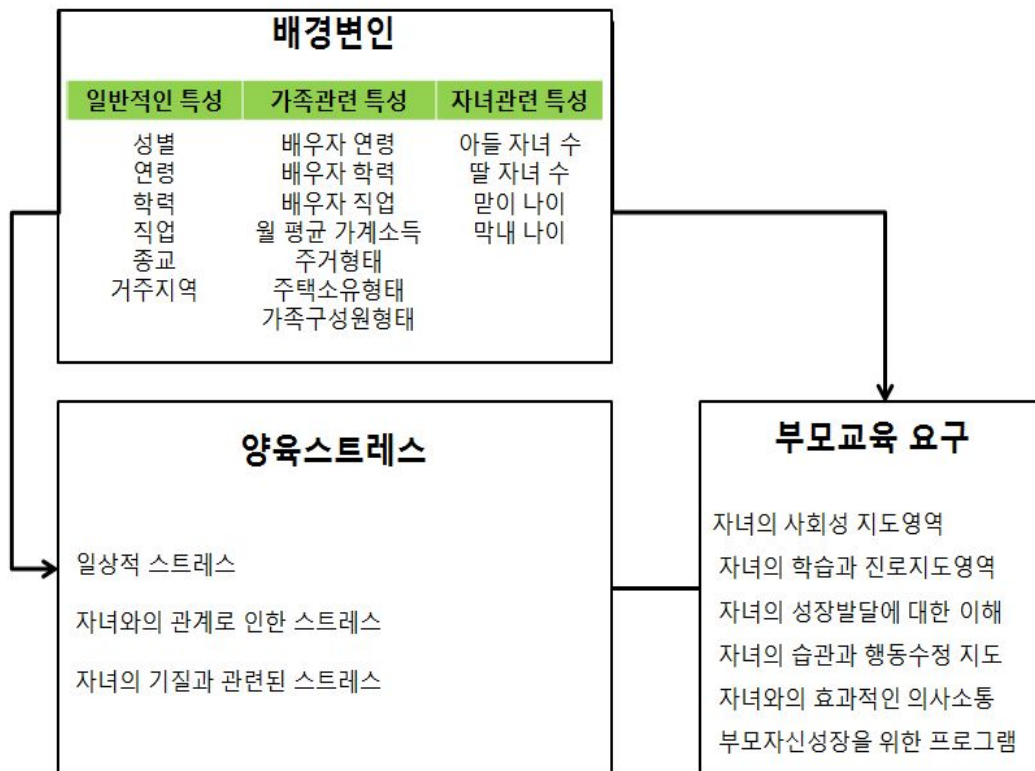
	하위영역	문항수	해당문항	Cronbach' α
	자녀의 사회성 지도영역	3	1,2,3	.887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영역	3	4,5,6	.823
부모교육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3	7,8,9	.848
요구도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	3	10,11,12	.767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3	13,14,15	.838
	부모자신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5	16,17,18,19,20	.906
전체				.948

④자녀의 습관과 행동 수정 지도 영역은 특정한 문제 행동 수정,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하지 않기, 예절지도를 내용으로 하였다. ⑤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영역은 자녀와의 갈등 원인과 갈등 해결, 자신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기술을 내용으로 하였다. ⑥부모자신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영역으로는 부모 자신 스스로의 자아탐색과 행동패턴 및 영향요인 탐색시간, 부부 관계 기술,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해결방법, 부모의 분노조절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하였다.

5) 연구모형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부모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설정하여 청소년기 부모의 부모교육 요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적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용된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이용하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하였다.

넷째,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 대상은 아버지 40명(20.2%), 어머니 158명(79.8%)로 총 198명으로 구성되었다.

본인 연령은 40대 이하가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0대 이상이 20.7%이다. 배우자 연령도 40대 이하가 68.2%로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이 31.8%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연령층이 40대,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 발달단계상 중년기¹⁾에 해당한다.

본인 학력은 대졸 이상이 67.7%로 가장 많으며, 배우자 학력도 대졸 이상이 61.6%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인학력의 고졸 이하는 32.3%이고, 배우자학력의 고졸 이하는 28.4%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학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 분포는 불교가 41.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무교가 32.0%, 천주교가 13.7%, 기독교가 12.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정에서 불교와 무교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가계 소득 평균은 300만원~399만원 미만의 가정이 35.9%이며, 그 다음은 400만원 이상이 28.3%, 199만원 이하가 22.7%, 200만원~299만원의 가정은 13.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산층 이거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말자녀 나이는 중학생이 53.0%로 가장 높으며, 고등학생이 47.0%로 조사대상자 가정의 첫째자녀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수는 2명이 57.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3명이 27.3%, 1명이

1)윤 진(1998)은 남자의 경우는 39~59세, 여자의 경우는 36~55세 까지를 중년기로 보고 있다. “인생단계와 그 연령 기준(I)”. 한국심리학회지 7(2), pp127~139.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98)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아버지	40	20.2	지역	제주시	102	51.5
	어머니	158	79.8		서귀포	96	48.5
본인 나이	40대 이하	157	79.3	배우자 나이	40대 이하	135	68.2
	50대 이상	41	20.7		50대 이상	63	31.8
본인 학력	고졸 이하	64	32.3	배우자 학력	고졸 이하	76	38.4
	대졸 이상	134	67.7		대졸 이상	122	61.6
본인 직업	전문직	49	24.7	배우자 직업	전문직	42	21.1
	행정.사무	40	20.2		행정.사무	38	18.9
	판매,서비스	34	17.2		판매,서비스	22	9.8
	자영업 (생산,농수산,기술)	34	17.2		자영업 (생산,농수산,기술)	60	31.5
	전업주부	41	20.7		전업주부	36	18.7
월 수입	199만원 이하	45	22.7	종교	불교	80	41.5
	200~299만원	26	13.1		기독교	26	12.8
	300~399만원	71	35.9		천주교	28	13.7
	400만원 이상	56	28.3		무교	64	32.0
주거 형태	단독주택	54	27.3	주택 소유 형태	자가	146	73.7
	아파트	77	38.9		자가 외(전세,월세 등)	52	26.3
	연립주택, 빌라	67	33.8	가족 형태	부부+미혼자녀	159	80.3
자녀 수	1명	20	10.1		한부모+미혼자녀	39	19.7
	2명	114	57.5	말자녀 나이	중학생	105	53.0
	3명	54	27.3		고등학생	93	47.0
	4명 이상	10	5.1				

10.1%이다. 4명 이상인 가정은 5.1%로 나타났다. 이는 요즘시대의 가정들이 대부분 핵가족이라는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38.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연립주택 및 빌라가 33.8%, 단독주택이 27.3%에 이른다.

주택 소유 형태는 자가인 경우는 73.7%로 대부분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 외에 전세 및 월세·사글세가 26.3%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생활주기상 청소년기가 있는 가족의 발달과업을 비추어 볼 때 경제적 과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족 형태는 부부+미혼자녀가 8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부모+미혼자녀의 가정은 19.7%이다.

부모 본인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직이 24.7%, 행정·사무직이 20.2%, 판매·서비스 직과 자영업이 17.2%로 동일했으며 전업주부는 20.7%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75%이상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는 중년기 발달과업의 부모들은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1) 부모교육 요구도

(1) 부모교육 필요성 및 이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필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교육 필요성 및 이유

(n=198)

구 분		제주시		서귀포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필 요 성	전혀 그렇지 않다	5	5.0	2	2.0	5	2.5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14	13.9	5	5.3	21	10.7
	조금 그렇게 생각한다	59	57.4	37	38.5	96	48.2
	아주 그렇게 생각한다	24	23.8	52	54.2	76	38.6
	합계	102	100.0	96	100.0	198	100.0
이 유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과 모범적인 생활을 위해	18	20.9	38	41.8	55	31.6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14	17.4	6	7.7	19	12.4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22	25.6	17	18.7	36	22.0
	자녀의 행동지도(생활예절 교육, 학습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5	18.6	8	9.9	22	14.1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14	17.4	20	22.0	33	19.8
	합계	83	100.0	89	100.0	172	100.0

<표 5>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주시 83명(81.2%), 서귀포시 89명(92.7%)로 매우 높게 나타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주시 18.9%, 서귀포시 7.3%로 나타나 서귀포시 부모들이 제주시 부모들보다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역할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에 ‘조금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주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제주시 83명(81.2%), 서귀포시 89명(92.7%)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제주시 부모들은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가 25.6%로 가장 많았으며, 서귀포시 부모들은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과 모범적인 생활을 위해서”가 41.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녀양육과 지도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적절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귀포시 부모들은 자녀 지도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 필요성에서 이은경(1995), 윤명선(1991), 전은희(1995)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으나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에서는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서, 자녀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자녀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위해서라고 나타나 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부모교육의 가장 큰 필요성은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 부모들은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과 모범적인 생활을 위해서가 가장 많아 부모 자신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측면,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부모 자신의 발전을 위한 내용도 적절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진다.

(2) 부모교육 참여경험

부모교육 참여 여부는 부모교육 참여 경험, 참여했을 때 도움정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교육 참여경험

(n=198)

구 분		제주시		서귀포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참여 경험	들어보지도 못하고 참여한 적도 없음	22	21.5	6	6.3	28	14.1
	들어보았으나 참여하지 않음	45	44.1	35	36.4	80	40.4
	들어보고 참여함	35	34.4	55	57.3	90	45.5
	계	102	100.0	96	100.0	198	100.0
참여 후 도움	아주 도움이 되었다	5	14.2	18	32.5	23	25.6
	도움이 되었다	24	68.5	32	58.2	56	62.2
	그저 그렇다	6	17.3	4	7.2	10	11.1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	1	1.8	1	0.1
	계	35	100.0	55	100.0	90	100.0
불참 이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3	6.7	3	8.6	6	7.5
	시간이 없어서	42	93.3	29	82.6	71	88.8
	기타	0	0	3	8.8	3	3.7
	계	45	100.0	35	100.0	80	100.0

그러나 실제로 부모교육에 참가한 경우를 보면 제주시는 34.4%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57.3%로 제주시보다 서귀포시 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교육에 관해 들어보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둘다 ‘시간이 없어서’가 대부분의 응답이었다.

부모교육 참여 후 도움 정도는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제주시 35명(34.4%), 서귀포시 55명(57.3%) 총 9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주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제주시 14.2%, 서귀포시 32.5%로 부모교

육의 효과는 서귀포시 부모들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도움이 되었다’의 경우를 포함한다면 제주시 82.9%, 서귀포시 97.7%로 나타나 부모교육에 참가한 부모들은 대부분 부모교육 참여 후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의 경우도 제주시 17.3%, 서귀포시 7.2%로 나타났고, ‘도움이 안 되었다’를 포함한다면 제주시 17.3%, 서귀포시 9.0%로 나타나 이들이 왜 도움이 안 되었는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부모교육의 방향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교육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시 43명(34.4%), 서귀포시 35명(36.3%)이 해당되었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로 제주시 93.3%, 서귀포시 82.6%로 나타나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시간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인오(1994), 이은경(1995)의 연구에서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이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제주시 6.7%, 서귀포시 8.6%로 서귀포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3) 부모교육 실시 방법과 형태

부모교육의 실시 방법과 형태는 부모교육을 받는 적당한 시기, 참가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교육 방법, 교육 기관, 교육비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부모교육을 받는 적당한 시기는 ‘평생동안 계속되어야 한다’가 제주시 23.0%, 서귀포시가 40.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결혼 전’에 받아야 된다가 20.0%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이었다. 서귀포시 부모들은 ‘자녀출산후’에 부모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22.1%가 두 번째로 응답하였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부모교육이 실시되

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결혼 전’에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제주시 25.0%, 서귀포시 14.8%로 보아 예비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부모 모두 결혼 전 부모결혼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응답이 높아 부모교육이 현재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비부모 즉 부모가 될 사람이라면 고등학교 때부터 실시하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표 7> 부모교육시기와 고려사항

(n=198)

구 분		제주시		서귀포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시기	고등학교	5	5.0	3	3.2	8	4.1
	결혼 전	20	20.0	11	11.6	31	15.9
	신혼~첫자녀 출산	16	16.0	11	11.6	27	13.8
	자녀출산후	16	16.0	21	22.1	37	19.0
	결혼 후 계속	17	17.0	10	10.5	27	13.8
	평생동안 계속	25	23.0	39	40.0	64	31.3
	기타	3	3.0	1	1.1	4	2.1
	합계	102	100.0	96	100.0	198	100.0
고려 사항	강사진	6	5.9	11	11.5	17	8.6
	교육내용	73	71.6	75	78.1	148	74.7
	참가비	6	5.9	0	0	6	3.0
	실시하는 기관	1	1.0	2	2.1	3	1.5
	강의시간	9	8.8	4	4.2	13	6.6
	교통사정	4	3.9	1	1.0	5	2.5
	가족들의 이해	2	2.0	3	3.1	5	2.5
	기타	1	1.0	0	0	1	0.5
합계	102	100.0	96	100.0	198	100.0	

기타를 제외하고 부모교육이 고등학교 때 실시하는 것을 가장 낮게 응답하고 있는데 전은희(1995)와 이은경(199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부모교육은 현재 부모이거나 혹은 곧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식이 은연중에 내포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원영(1991)은 부모교육의 유형을 대상자에 의한 분류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교육이 단지 현재 부모인 경우, 혹은 결혼을 앞두고, 부모전환기에 있는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찍부터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럴 때 부모교육이 가족생활 교육의 하나로서 평생교육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에 의하면,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 내용’으로 제주시 71.6%, 서귀포시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인오(1994)와 이은경(199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는 참가할 부모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교육 내용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강의 시간’과 ‘강사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서귀포시와 비교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참가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주시 부모들이 경제적인 여건을 좀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참가 대상에 따라 적절한 강의 시간과 경제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8>을 살펴보면 부모교육에 적합한 교육 방식에서 ‘역할놀이 중심의 직접적인 부모역할 훈련’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토론가 대화는 21.9%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 방법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화와 토론은 그나마 익숙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 보여지고, 역할놀이 중심의 직접적인 부모역할 훈련이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교육방식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다양한 교육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교육에 적당한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문기관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소속 학교가 24.2%로 높았다. 이는 부모교육이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나 자녀 소속 학교에서 받은 경험이 많았고, 그 만족도가 높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종교단체나 기타는 1.0%의 응답률을 보아 많은 부모들이 종교단체에서 하는 부모교육보다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나 자녀의 소속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를 살펴보면 무료가 48.0%로 가장 많아서 부

모교육이 아직도 무료교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제주도 내에서 부모교육이 유료교육보다는 무료교육이 훨씬 많이 있어 이러한 응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부모교육이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간대는 18시~20시가 3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가 많아 18시 이후에 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생 인원은 10~20명이 40.9%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토론과 대화 및 역할놀이 중심의 직접적인 부모역할 훈련을 하는 데 알맞은 시간으로 해석된다.

교육시간은 2시간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교육기간은 3개월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주당 횟수는 1주일에 1번이 54.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표 8> 부모교육 실시 방법과 형태

(n=198)

구분		전체		구분		전체	
		빈도	%			빈도	%
교육 요일	평일	46	23.2	교육 진행 방식	강의와 강연	39	19.9
	월 화 수 목 금	15	7.6		토론과 대화	43	21.9
		18	9.0		강의와 토론	25	12.9
		8	4.0		역할놀이 중심의 직접 적인 부모역할 훈련	83	41.3
		2	1.0		기타	8	4.0
		3	1.6		합계	198	100.0
	주말	152	76.8		교육 기간	1개월	41
합계	198	100.0	2개월	53		26.8	
교육 시간대	9~11시	50	25.2	3개월		77	38.9
	13~15시	63	31.8	6개월		21	10.6
	16~18시	7	3.5	12개월		3	1.5
	18~20시	75	37.9	기타		3	1.5
	기타	3	1.5	합계	198	100.0	
	합계	198	100.0	교육 시간	1시간	57	28.7
교육생 인원	10명 이하	55	27.8		2시간	115	58.1
	10~20명	81	40.9		3시간	26	13.2
	20~30명	41	20.7		합계	198	100.0
	30명 이상	11	5.6		주당 횟수	1번	107
	기타	10	5.0	2번		71	35.8
	합계	198	100.0	3번		10	5.0
교육 기관	문화단체	7	3.5	기타		10	5.5
	전문사설학원	34	17.2	합계		198	100.0
	자녀소속학교	48	24.2	참가 비	무료	95	48.0
	평생교육기관	30	15.2		3만원 미만	55	27.8
	사회복지전문기관	61	30.8		3~5만원	35	17.7
	공공기관(시청,도청)	16	8.1		5~10만원	5	2.5
	종교단체	1	0.5		10~15만원	5	2.5
	기타	1	0.5		기타	3	1.5
	합계	198	100.0		합계	198	100.0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1)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

(n=198)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상적 스트레스	14.00	42.00	26.37	4.8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8.00	31.00	19.22	4.88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7.00	28.00	18.45	4.25
전체	32.00	95.00	64.05	11.74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총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총 10문항으로 문항의 합은 10-50점,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8문항으로 8-40점,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총 7문항으로 7-35점으로 변수를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스트레스 요인 중 일상적 스트레스는 평균 26.37점으로 표준편차는 4.81이다. 양육스트레스에서 일상적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평균 19.22점이고, 표준편차는 4.88이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평균 18.45점, 표준편차가 4.25로 나타났다.

2)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개인관련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Scheffe'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부모의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지역, 본인연령, 본인학력, 본인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 중 일상적 스트레스는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귀포시 부모보다 제주도 부모들이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 전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일수록 40대 이하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양육스트레스 전체도 부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일수록 40대 이하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의 학력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 전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일수록 대졸 이상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전체를 살펴보면 일상적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 학력인 부모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선미정(1994)이 보고한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예언 변인이라는 결과를 지지한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제적 능력을 가지며 나아가 부모 자신이 스트레스를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일수록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서비스 직, 그 다음은 자영업(생산, 농수산, 기술직 포함)직종이었고, 그 다음은 행

정·사무직, 전문직 순이었다.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구분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전체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성별	아버지	25.87		19.00		18.35		63.22	
	어머니	26.50		19.27		18.48		64.26	
	t값	-.740		-0.321		-.177		-.500	
지역	제주시	27.04		19.41		18.89		65.35	
	서귀포	25.66		19.02		18.00		62.68	
	t값	2.036*		.562		1.474		1.601	
본인 연령	40대 이하	26.22		18.78		18.17		63.17	
	50대 이상	26.95		20.90		19.53		67.39	
	t값	-.855		-2.506*		-1.837		-2.060*	
본인 학력	고졸이하	27.84		19.96		18.68		66.52	
	대졸이상	25.67		18.86		18.35		62.89	
	t값	3.020*		1.491		.509		2.039*	
본인 직업	전문직	24.77	a	18.42		17.59		60.79	
	행정·사무	25.80	a	19.07		18.97		63.85	
	판매,서비스	27.35	a	19.17		18.36		64.90	
	자영업 (생산,농수산,기술)	26.70	a	18.94		18.55		64.20	
	전업주부	27.78	a	20.58		18.97		67.34	
	F값	2.865*		1.163		.813		1.825	
종교	불교	25.50		19.02		18.07		62.60	
	기독교	27.40		19.76		19.04		66.25	
	천주교	27.07		19.14		19.37		65.59	
	무교	26.82		19.35		18.21		64.40	
	F값	1.279		.195		.832		.638	

1) S: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 p<.05

3)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가족관련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Scheffe'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 학력, 월 가계 평균 수입,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학력은 양육스트레스 전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배우자의 학력이 고졸 이하일수록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계 평균 수입은 모든 양육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전체는 월 가계 평균 수입이 적을수록 부모들이 가장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이 가장 많은 부모들은 가장 적은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즉 월수입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전체에서 4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인 부모와 199만원 이하의 월수입인 부모들은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택소유형태는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가를 소유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도 주택을 소유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받고 있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자가를 소유하지 않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전체를 살펴보면 자가 외(전세, 월세, 사글세 등)의 부모들이 가장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구성형태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한부모+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일 때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전체 또한 마찬가지로 한부모+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정일수록 가장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녀수에 따른 선행 연구(김미현, 류점숙, 심효식, 1993)에서 자녀 양육은 심리적인 부담감과 재정적인 뒷받침 등의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녀 수의 증가는 곧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와 다른 맥락의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역, 학력, 연령, 직업, 월 평균 가계 소득,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형태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제주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의 직업이 전업주부일수록, 월평균 가계 소득이 적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수록, 한부모 가정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가족관련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구분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전체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배우자 연령	40대 이하	25.91	18.62	18.04	62.57				
	50대 이상	27.30	19.87	19.27	66.45				
	t값	-1.573	-1.417	-1.600	-1.816				
배우자 학력	고졸이하	27.35	19.83	18.96	66.17				
	대졸이상	25.73	18.51	18.05	62.31				
	t값	2.018*	1.639	1.276	1.971*				
배우자 직업	전문직	25.66	18.61	17.64	61.92				
	행정.사무	25.97	18.94	17.82	62.74				
	판매,서비스	25.15	18.10	17.94	61.05				
	자영업 (생산,농수산,기술)	26.29	18.23	18.63	63.17				
	전업주부	27.44	20.36	19.41	67.22				
	F값	.925	1.179	1.051	1.292				
월수입	199만원 이하	28.31	b	21.72	c	20.43	b	70.47	c
	200~299만원	26.69	ab	20.38	bc	18.84	ab	65.92	bc
	300~399만원	26.45	ab	18.74	ab	18.37	ab	63.55	ab
	400만원 이상	24.57	a	17.32	a	16.89	a	58.78	a
	F값	5.373**	8.166***	6.213***	9.455***				
주거 형태	단독주택	26.52	19.54	18.62	64.68				
	아파트	25.53	18.80	17.83	62.16				
	연립주택,빌라	27.25	19.47	18.95	65.69				
	F값	1.560	.318	1.119	1.163				
주택 소유 형태	자가	25.89	18.57	18.08	62.55				
	자가 외	27.75	21.03	19.50	68.35				
	t값	-2.422*	-3.194*	-2.070*	-3.102*				
가족 구성 형태	부부+미혼자녀	26.22	18.88	18.30	63.41				
	한부모+미혼자녀	27.45	21.66	19.58	68.70				
	t값	-1.173	-2.655*	-1.387	-2.089*				
자녀수	1명	27.45	21.00	19.55	68.00				
	2명	25.85	18.75	18.03	62.64				
	3명	26.64	19.27	18.75	64.67				
	4명 이상	28.80	20.70	19.50	69.00				
	F값	1.705	1.551	1.102	1.974				
말자녀 나이	중학생	26.39	19.23	18.61	64.24				
	고등학생	26.36	19.20	18.27	63.83				
	t값	.036	.048	.571	.244				

1) S: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2) F검증에 대한 사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c>b>a
 * p<.05, ** p<.01, *** p<.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도

1)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의 전반적인 경향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의 전반적인 경향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녀의 사회성지도	5.00	15.00	12.76	2.25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	7.00	15.00	13.32	1.80
자녀의 성장발달	5.00	15.00	12.91	2.14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	3.00	15.00	12.02	2.23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7.00	15.00	12.96	2.16
부모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	12.00	25.00	20.39	3.78
전체	53.00	100.00	84.40	11.88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는 총 20문항으로 자녀의 사회성 지도 영역 3문항,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 영역 3문항, 자녀의 성장발달 3문항,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 3문항,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3문항, 부모자신을 위한 프로그램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합은 20점-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교육에서 부모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보다는 부모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2)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부모의 개인관련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Scheffe'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 따르면, 부모교육 요구도는 지역과 본인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은 부모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본인직업은 자녀의 사회성 지도와 자녀의 성장발달은 본인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은 부모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제주도 보다 서귀포시 부모들이 더 많은 부모교육 요구가 있었다.

본인직업은 자녀의 사회성 지도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판매·서비스 직업을 가질수록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사무직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문직이었다. 전업주부와 자영업일수록 가장 낮은 요구가 있었다.

자녀의 성장발달 요구에서는 전문직일수록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으며, 그 다음은 판매·서비스 순이었다. 그 다음은 행정·사무직이었고, 전업주부와 자영업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전업주부와 자영업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부모들은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낮았다.

<표 13 >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요구도

구분	자녀의 사회성 지도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		자녀의 성장발달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부모자신을 위한 프로그램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성별	아버지	12.45	12.90	13.07	12.01	12.60	19.70					
	어머니	12.87	13.43	12.87	12.02	13.06	20.56					
	t값	-1.083	-1.691	.513	-.001	-1.209	-1.300					
지역	제주시	12.59	13.19	12.87	11.91	12.95	19.89					
	서귀포	13.00	13.46	12.96	12.14	12.98	22.92					
	t값	-1.275	-1.065	-.314	-.737	-.125	-1.986*					
연령	40대 이하	12.76	13.34	12.99	12.13	13.11	20.53					
	50대 이상	12.87	13.26	12.63	11.60	12.41	19.85					
	t값	-.277	.239	.954	1.342	1.852	1.026					
학년	고졸이하	12.67	13.04	12.76	12.18	12.67	19.64					
	대졸이상	12.84	13.46	12.99	11.94	13.11	20.75					
	t값	-.521	-1.524	-.694	.706	-1.339	-1.949					
직업	전문직	13.14	a	13.55	13.59	a	11.91	13.46	21.18			
	행정.사무	13.15	a	13.37	13.02	a	12.35	13.25	20.65			
	판매,서비스	13.27	a	13.44	13.17	a	12.67	13.05	20.91			
	자영업 (생산,농수산,기술)	12.00	a	13.00	12.35	a	11.35	12.44	19.29			
	전업주부	12.29	a	13.19	12.26	a	11.85	12.46	19.68			
	F값	2.597*	.560	2.997*	1.826	1.933	1.848					
종교	불교	12.87	13.54	13.15	12.11	13.12	20.69					
	기독교	12.56	13.60	13.08	11.76	13.00	20.68					
	천주교	13.07	13.40	13.29	12.44	13.29	20.62					
	무교	12.56	12.89	12.35	11.81	12.56	19.79					
	F값	1.101	1.502	1.780	.560	1.122	.585					

1) S: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2) F검증에 대한 사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b>a
 * p<.05, ** p<.01, *** p<.001

3)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가족관련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Scheffe'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는 배우자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사회성 지도에서 배우자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 연령이 50대 이상일수록 40대 이하 부모보다 더 많은 부모교육 요구를 나타내고 있었다.

배우자 학력, 배우자 직업, 월 가계 평균 소득,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자녀의 수, 맏자녀 나이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윤명선(1991)의 연구에서는 월소득 중 저소득층은 자녀의 장애문제 지도, 가족 건강과 정신위생에 대한 교육과 품성도양 지도 순으로 희망하고, 중간소득은 자녀의 장애문제 지도, 자녀의 자율성 지도, 중년기 건강관리를, 고소득층은 자녀의 장애문제 지도, 중년기 건강관리, 시기 요법 및 응급처치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랑(2003)의 연구에서는 월소득에 따라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전반적인 부모교육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부모교육 요구에 대해서 월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교육 요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은경(1995)의 연구에서는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성교육, 친구관계 지도, 성격지도, 학습 및 진로지도, 적성개발 및 취미지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랑(2003)의 연구에서는 맏자녀의 연령이 고등학생 이하인 집단이 중학생인 집단 보다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부모 교육 요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4>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구분		자녀의 사회성 지도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	자녀성장발달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부모자신을 위한 프로그램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배우자 연령	40대 이하	12.59	13.20	12.80	11.91	12.96	20.28
	50대 이상	13.43	13.60	13.07	12.32	13.02	20.55
	t값	-.2.062*	-.1.202	-.684	-1.071	-.160	-.385
배우자 학력	고졸이하	12.73	13.00	12.83	11.86	12.67	19.97
	대졸이상	12.80	13.42	12.88	12.06	13.10	20.52
	t값	-.175	-1.430	-.154	-.558	-1.212	-.941
배우자 직업	전문직	12.48	13.61	13.05	11.82	12.89	20.43
	행정.사무	13.08	13.31	12.97	12.25	13.31	20.51
	판매,서비스	13.10	13.21	13.31	12.42	13.31	21.42
	자영업 (생산,농수산,기술)	13.02	13.29	12.68	11.87	12.95	20.10
	전업주부	12.38	13.02	12.63	12.00	12.63	19.97
	F값	.811	.502	.472	.405	.565	.540
월소득	199만원 이하	12.79	13.43	13.25	12.40	12.84	20.72
	200~299만원	12.61	13.03	12.26	11.73	12.23	19.42
	300~399만원	12.98	13.33	13.23	12.05	13.40	20.77
	400만원 이상	12.69	13.44	12.62	11.87	12.92	20.19
	F값	.258	.349	2.070	.671	2.088	.975
주거 형태	단독주택	12.72	13.20	12.84	11.78	12.80	20.42
	아파트	13.11	13.51	13.00	12.19	13.23	20.66
	연립주택,빌라	12.45	13.22	12.89	12.00	12.85	20.08
	F값	1.072	.489	.069	.362	.815	.285
주택 소유 형태	자가	12.85	13.38	12.93	11.95	13.06	20.45
	기타(전세,월세)	12.61	13.17	12.86	12.23	12.71	20.21
	t값	.662	.722	.210	-.776	1.000	.404
가족 구성 형태	부부+미혼자녀	12.78	13.29	12.87	12.01	12.98	20.33
	한부모+미혼자녀	12.87	13.54	13.25	12.12	12.87	20.79
	t값	-.194	-.618	-.804	-.233	.228	-.548
자녀 수	1명	12.10	13.25	12.70	11.75	12.50	20.00
	2명	12.89	13.44	13.05	11.97	13.10	20.27
	3명	13.00	13.18	12.85	12.16	12.96	20.88
	4명이상	11.90	12.90	12.20	12.40	12.40	19.90
	F값	1.411	.477	.604	.285	.689	.472
말자녀 나이	중학생	12.74	13.31	13.00	11.97	12.89	20.22
	고등학생	12.84	13.34	12.82	12.08	13.05	20.58
	t값	-.341	-.116	.562	-.360	-.513	-.652

1) S: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 p<.05, ** p<.01, *** p<.001

5.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

양육스트레스의 세 가지 하위영역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표 15>와 같다.

<표 15>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의 관계

구분	일상적 스트레스	관계 스트레스	기질관련 스트레스	사회성 지도	학습·진로 지도	성장발달 이해	습관·행동수정	의사소통 교육	자신성장 프로그램
일상적 스트레스	1								
관계 스트레스	.517**	1							
기질관련 스트레스	.484**	.675**	1						
사회성 지도	.497**	.558**	.646**	1					
학습·진로 지도	.752**	.627**	.548**	.656**	1				
성장발달 이해	.783**	.540**	.423**	.604**	.556**	1			
습관·행동수정	.558**	.866**	.722**	.617**	.475**	.623**	1		
의사소통 교육	.864**	.585**	.411**	.621**	.494**	.698**	.656**	1	
자신성장 프로그램	.755**	.508**	.749**	.584**	.509**	.661**	.658**	.684**	1

* p<.05, ** p<.01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교육 요구도의 모든 요인들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자녀의 사회성 지도영역과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관계가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그 중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결과를 보면 .646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양육 스트레스 값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영역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 영역과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관계가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그 중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결과를 보면 .752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양육 스트레스 값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 영역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와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관계가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그 중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결과를 보면 .783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양육 스트레스 값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와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관계가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그 중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결과를 보면 .866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양육 스트레스 값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관계가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그 중 일상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결과를 보면 .864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양육 스트레스 값이 높아질수록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자신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관계가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그 중 일상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결과를 보면 .755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양육 스트레스 값이 높아질수록 부모 자신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교육 요구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

게 된다. 이 연구와 같이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 간의 관계를 살펴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할 경우 설문 응답자는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부모교육 요구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 볼 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의 관계를 활용하여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기획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 부모교육에 관한 견해와 요구도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비교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자녀 지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 부모들이 제주시 지역 부모들보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 필요 이유는 부모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과 모범적인 생활을 위해서와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부모가 가장 많았다.

둘째, 부모교육 참가 경험은 부모교육에 관해 들어보았다가 제주시 78.5%, 서귀포시 93.7%로 부모교육 실시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에 참가한 후 도움 정도는 제주시 82.7%, 서귀포시 90.7%가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다. 부모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셋째, 부모교육을 받는 적당한 시기는 ‘평생 동안 계속 되어야 한다’가 많았으며, 부모교육을 받을 때 가장 고려할 사항으로는 ‘교육 내용’이 많았다. 교육 기관은 ‘사회복지 전문기관, 자녀의 소속 학교’가 많았고, 프로그램 교육비는 ‘무료’가 많았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월가계 평균수입,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서귀포시 지역보다는 제주시 지역의 부모가, 부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일수록, 부모의 직업이 전업주부일수록, 월평균 가계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한부모가정

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도는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과 부모의 직업 및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부모들보다 부모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또한 부모 본인이 전업주부일때보다 직업을 가질수록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연령은 50대 이상일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 교육요구가 높아졌다.

여섯째,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교육 요구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 중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영역,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부모자신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에,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성 지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삶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었으며,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삶의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부모교육요구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힘들어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 볼 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들의 수준을 잘 살펴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방안 및 자녀양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

2.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 대상을 제주도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표집에 있어서 지역적 제한이 있었다.

둘째, 부모교육은 일반아동, 장애아동, 재혼가족, 편부모 가정, 입양가족의 부모 등 다양한 대상의 적절한 욕구를 찾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거치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정시켰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사회교육 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간이 없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아서 직장에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을 둔 부모들에게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참가 대상자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프로그램의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특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효과는 지금까지 프로그램 종료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한 번의 평가로 끝난 경우가 많아 효과 검증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교육 실시 후 효과검증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한국문헌

<각 주>

- 가족스트레스연구회(1994), *엄마의 스트레스*, 창지사.
- 김명자(1989), 「중년기 연구」, 교문사, pp.57~58.
- 김명희(2000), *현대사회와 부모교육*, 학문출판(주).
- 박난희(2002), 중년여성의 홑병과 그 대처방안, *가정과 상담* 제58호(2002.11).
- 최규련(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p.108.
- 정영숙 외(1999). “청소년과 생활환경 :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여행”, *대한가정학회지* 37(2), p.193.
- 문혁준(2001).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1호, pp. 205-219.
- 한국가족관계학회(1998), 「가족생활교육」, 하우, pp.203~204.

<학위논문>

- 김은경(2008),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공주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은선(2012), 긍정심리중심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부모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혜진(2004),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홍렬(2004), 유치원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요구조사, 충신대선교대학원.
- 노지영(2006), 맞벌이 여부에 따른 초등학교 학부모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성원(2010),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유자(2000),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명선(1991), 사회교육으로서 부모교육 program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0.
- 윤소영(200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도 및 요구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1995), 사회교육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92~93.
- 이은정(2003), 중년기의 부부관계 만족도, 위기감 및 부부교육 요구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이지연(2001), 청소년 자녀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석사학위논문.
- 전은희(1995), 영·유아기 자녀의 아버지가 인식한 부모교육,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8~62.
- 정인오(1994), 사회교육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5.

2. 외국문헌

- Chilman, C.S(1980), Parent satisfactions, concerns, and goals for their childrens, *Family Relations* 29.
- Constantino, S. M. (2003). Engaging all families: Creating a Positivschool Education.
- Dumas, & LaFrenter, P.J. (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s of support or sstress : A comparisons of competent, average, aggresivem and naxious dads. *Child Development* 64. pp. 1732-1754.

<Abstract>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Needs for Parent Education

- With a Focus on Parents of Adolescents -

Youn, Eun-hye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e-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for developing effective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of adolescents by understanding how parenting stress and the needs for parent education are differed on socio-demographic factors.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needs for parent education.

Assignment 1. How is parent education generally regarded by parents of adolescents?

Assignment 2. How are parenting stress and the needs for parent education are affected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Assignment 3. How are parenting stress and the needs for education correlated?

To answer the questions, a survey was conducted of 198 parents of students from six middle schools on Jeju. For data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by SPSS for Windows 12.0.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Parent education was highly welcomed by most of the parents of adolescents. The parents in Seogwipo City were more interested in it than those in Cheju City. Establishing values, performing as a role model for children, and having an effective parent-child communication were what the parents desired to learn. The education was relatively well known, as 78.5 percent of parents in Jeju City and 93.7 percent in Sogwipo City said that they have heard of it before. Regarding its effectiveness, 82.7 percent in Jeju City and 90.7 percent in Seogwipo City were satisfied respectively. Meanwhile, lack of time was the one of the main reasons of not being able to attend the education programs.

In addition, it was required to be a life-long project and the carefully chosen educational contents were found to be essential to meet the most parents' needs. Most of the education programs were conducted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well as local schools while most of them were free of charge.

The levels of parenting stress were affected by various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region, age, education background, occupation, average household income, types of housing and types of families. The parents living in Jeju City, those over 50 years old, thos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and those without their own houses were exposed to higher levels of the stress. The housewives, low-income parents and the single parents were more fragile to the stress than the others.

Furthermore, parent education was preferred by certain group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region, occupation and age of spouse. The parents living in Seogwipo City, those having an

occupation, and those whose spouses are older than 50 were more eager to take part in the education programs.

Lastly, the parents exposed to higher levels of parenting stress were more likely to seek out parent education. The parents exposed to higher levels of daily stress were more enthusiastic for guiding children's learning experiences and future career decisions, understanding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improving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and pursuing personal development. Meanwhile, those under the stress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ere more passionate for attempting to teach socially acceptable behavior and manners. Those exposed to the stress regarding children's temperament were more eager to teach social skills.

In conclusion, parenting stress was analyzed to be highly correlated to the needs for parent education. The parents in higher quality of life were likely to have less levels of parenting stress and showed more interests in nurturing their children. On the contrary, the parents in lower quality of life were more stressed and showed fewer interests in bringing up their children. Therefore, the quality of life should be carefully surveyed to find out the ways to deal with parenting stress as well as to develop effective parent education program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3.

- 5.귀 가정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500만원 이상
- 6.귀하의 자녀(결혼한자녀 포함)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남___여 (총___명)
- 7.귀하의 맏자녀와 막내자녀의 연령은 어떤가요?
 맏자녀_____세, 막내자녀_____세
- 8.귀하의 가정의 주거형태는 어떤가요?
 ①단독주택 ②아파트 ③연립주택·빌라 ④기타()
- 9.귀하의 주택의 소유형태는 어떤가요?
 ①자가 ②전세 ③월세·사글세 ④기타()
- 10.귀하의 가족 구성형태는 어떤가요?
 ①부부+ 미혼자녀 ②한부모(부)+ 미혼자녀 ③한부모(모)+ 미혼자녀(모)
 ④부모+ 부부+ 미혼자녀 ⑤부모+ 부부+ 기혼자녀+ 미혼자녀
 ⑥부부+ 기혼자녀+ 미혼자녀 ⑦조부모+ 미혼손녀 ⑧기타()
- 11.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부모님의 양육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달라지지않는다 ②달라진다.(그 이유는?_____)

***PSI : 양육스트레스 척도**

다음 질문은 부모로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옆두에 두고 문항을 읽어 가면서 V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자녀일 경우, 가장 양육하기 힘든 아이를 떠올리며)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내가 일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지는 않다.	1	2	3	4	5
3. 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다.	1	2	3	4	5
4. 아이가 생기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에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5. 나는 외롭고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이 아이를 가진 뒤에도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세상 일에 관심도 있고 재미도 느낀다.	1	2	3	4	5
8. 나는 내 아이를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포기하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예전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다.	1	2	3	4	5
10.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재미없을 거라 생각을 한다.	1	2	3	4	5
11. 나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잘한다.	1	2	3	4	5
13. 아이는 나를 좋아하며 나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	1	2	3	4	5
14. 아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1	2	3	4	5
15. 아이는 때때로 나를 귀찮게 하려고 일을 저지른다.	1	2	3	4	5
16. 아이는 내 기대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	1	2	3	4	5
17. 아이는 내 기대만큼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	1	2	3	4	5
18. 나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갖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1	2	3	4	5
19. 아이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이 아니라서 결국은 내가 관여하게 만든다.	1	2	3	4	5
20. 내가 아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면 아이는 나의 수고에 대해 고마움을 아는 것 같다.	1	2	3	4	5
21. 아이에게 규칙적인 취침과 식습관을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1	2	3	4	5
22.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중지시키기는 어렵지 않다.	1	2	3	4	5
23. 아이는 아침에 잘 일어나며 기분도 괜찮아 보인다.	1	2	3	4	5
24. 아이는 성가신 행동(산만하다, 운다, 싸운다, 빈둥거린다 등)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25. 아이는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심하게 반발한다.	1	2	3	4	5

*다음은 부모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귀하는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역할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번으로) ②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3번으로)
 ③ 조금 그렇게 생각한다. (2번으로) ④ 아주그렇게 생각한다. (2번으로)

2.(1-1)부모교육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과 모범적인 생활을 위해서
 ②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③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④ 자녀의 행동지도(생활예절교육, 학습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⑤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⑥ 기타()

3. 귀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부모교육에 관하여 들어보거나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 (6번으로)
 ② 들어보았으나 참여한 적은 없다. (5번으로)
 ③ 들어보고 참여한 적이 있다. (4번으로)

4.(3-1)부모교육에 참가하시고 난 후 자녀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3-2)귀하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비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④ 기타()

6. 부모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② 결혼 전 ③ 신혼~첫자녀 출산 ④ 자녀출산 후
 ⑤ 결혼 후 계속 ⑥ 평생동안 계속 ⑦ 기타()

7. 귀하가 부모교육에 참여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강사진 ② 교육내용 ③ 참가비 ④ 실시하는 기관 ⑤ 강의시간
 ⑥ 교통사정 ⑦ 가족들의 이해 ⑧ 기타()

*다음은 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자녀를 지도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필요 없음	약간 필요 없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자녀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필요한 지식	1	2	3	4	5
2. 자녀가 가족들과 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필요한 지식	1	2	3	4	5
3. 자녀의 학교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	1	2	3	4	5
4.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교육	1	2	3	4	5
5.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	1	2	3	4	5
6. 자녀의 적성을 알기 위한 교육	1	2	3	4	5
7. 자녀의 행동특성 이해를 위한 지식	1	2	3	4	5
8. 성에 대한 자녀의 바른태도와 인식을 위한 지식	1	2	3	4	5
9. 자녀의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위한 지식	1	2	3	4	5
10. 자녀의 특정한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1	2	3	4	5
11. 자녀가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하지 않기 위한 교육	1	2	3	4	5
12. 자녀의 예절지도를 위한 교육	1	2	3	4	5
13. 자녀와의 갈등 원인을 알기 위한 대화 기술	1	2	3	4	5
14. 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을 확실히 표현하는 대화 기술	1	2	3	4	5
15. 세대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기술	1	2	3	4	5
16. 부모 자신 스스로의 자아탐색	1	2	3	4	5
17. 부모 스스로의 행동패턴과 영향요인 탐색	1	2	3	4	5
18. 부모인 부부의 관계 기술	1	2	3	4	5
19.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해결 방법	1	2	3	4	5
20. 부모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1	2	3	4	5

*그 외 자녀 지도에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이 있다면, 써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중한 연구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